

“거짓이 지배하는 시대에 진실을 말하는 것은 혁명적 행위다.” 조지 오웰 '1984'의 한 대목이다. 이 책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박탈하는 전체주의를 비판했다. 극단적 전체주의 사회인 오세아니아에서 정치 통제 기구인 당은 허구적 인물인 빅브라더를 내세워 독재 권력을 극대화한다. 이를 위해 텔레스크린과 사상경찰, 마이크로폰, 헬리콥터 등을 이용해 당원들을 감시하고 사상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과거를 끊임없이 날조한다. 여물을 뜨겁게 달군 2020 도쿄올림픽의 열기도 식어간다. 2024년 파리올림픽까지 3년이 남았다. 한국 스포츠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패러다임 전환 필요하다

빅브라더가 '빅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스포츠 현장에 깊숙이 파고든지 오래다. 빅데이터 이론이 우리 사회에 등장한 지 10여 년의 시간이 지났다. 이번 올림픽에서 한국 여자배구가 세계 4위 터키에 승리한 것은 빅데이터의 힘이 컸다. 선수 출신이 아닌 라바리니 감독은 데이터 분석을 통한 약점을 파악하고 강점을 최대한 활용했다.

현대 스포츠는 모든 것이 데이터화 되어 분석되고 활용된다. 빅데이터는 통계와 비슷하지만 다르다. 통계는 기존의 강한 신호를 분석해서 합리적 결론을 내리지만, 빅데이터는 '약한 신호'를 놓치지 않고 그 맥락을 찾아내 효과를 측정한다.

전 매 광 장

김석환
광주스포츠과학연구소장



스포츠 '1984'

약한 정보까지도 수집해 알고리즘을 통해 객관화·과학화시키는 것이다. 스포츠는 과학이다. 메달 수를 바꾸고 색깔을 좌우한다. 한국선수단은 237명이 출전해 금 6개, 은 4개, 동 10개의 성적으로 16위를 차지했다. 레슬링 종목의 양정모 선수가 사상 첫 금메달을 따낸 1976년 캐나다 몬트리올 올림픽 이후 최악의 성적이다. 타 임머신을 타고 45년 전으로 돌아갔다는 말이 많다.

시행착오의 연속이다. 한국 엘리트 체육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된 것이라 우려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줄어드는 환경에서 2016년 생활체육과 통합되면서 구심점이 흔들렸다. 이번 올림픽에서도 전통적 강세 종목인 양궁이 제 몫을 해주지 않았다면 더 나쁜

성적표를 받았을 것이다. 양궁이나 펜싱, 사격, 체조 같은 비인기 종목의 선전은 국가적 시스템이 아닌 기업의 후원과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현장에서 스포츠과학 지원은 시스템의 통합지원이 고려되지 않으면 실패한다. 측정 및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종목 특이적 훈련 및 컨디션지원, 빅데이터 기반 전략이 선행됐을 때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된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게 스포츠의 순리다. 기존 관성으로는 2024 파리올림픽의 선전도 기대하기 어렵다. 짧은 그림자라고 해서 덜 어두운 것은 아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

요하다.

과학은 혁명적으로 발전한다. 새로운 체계가 기존 세계관을 뒤엎으면서 다시 모습을 갖추는 것이다. 경기력 향상을 위한 시스템은 손보지 않고 세계적 선수가 나타나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일본의 선전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들은 최소 8년을 준비했다. 한국은 유난히 4위가 많았다. 시상대에 서지 못한 선수들에게도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이 쏟아졌지만 안타까움은 어쩔 수 없었다.

생존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버티내는 방식과 다른 하나는 적극적으로 상황을 돌파하는 방식. 혁신적인 정책만이 현장에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더 처절하게 새로운 이야기를 찾아 나서야 한다. 선수 육성 시스템이 잘못됐으면 고치면 된다. 스포츠과학 통합지원 시스템이 부족하면 개선해 나아가야 한다.

잘못된 정책을 고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아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질문을 던져야 한다. '코스모스'로 유명한 우주학자 칼 세이건은 "모든 질문은 세상을 이해하려는 외침"이라고 했다.

조지 오웰의 '1984'는 정교한 디테일로 미래 세계 모습을 그린다. 빅브라더를 통해 권력과 전체주의의 생리를 통찰하고 인간의 존엄을 강조한다.

그리하여 묻는다. 우리는 2024년 파리올림픽을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가? 문제점은 없는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사 설

행정통합 필요성 또 나올 수 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회가 오는 15일 열리기 전인 10일 비공개로 사전보고회가 있다고 한다. 공청회는 당초 지난 7월 30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지난 7월 30일 열릴 예정이었던 광주·전남도, 광주시와 바. 이번에는 무탈하게 서로 이견을 좁히고 최종적 용역 결과물을 내놓게 될지 주목된다.

광주시와 전남도, 나주시는 2006년 혁신도시 출범 당시 발전기금 조성과 재단 설립에 합의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광주시는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를 발전기금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전남도와 나주시는 정주여건 개선에 투입한 비용을 고려해 지방세 전액을 기금으로 조성하기 어렵다고 맞선다. 이 때문에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을 용역수행기관으로 정하고, 기금 조성과 운영 등에 관한 방향을 도출하는 과정에 있다.

이번 비공개 회동에서 갈등을 빚는

기금 조성에 대해 절충안을 찾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이견을 확인하거나 더욱 꼬일 경우 공동발전기금이란 상생의 미는 사라지고 추한 상충의 모습만 드러날 수 있다. 그렇잖아도 광주와 전남도, 광주시와 나주시 간 현안을 놓고 상처를 주거나 힘들게 하는 일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군공항과 민간공항 이전, SRF 열병합발전소를 둘러싼 분쟁 등으로 감정이 좋지 않다.

각자도생으로 치열하게 경쟁할 경우 혁신도시 발전기금을 만들어 성과를 공유하지는 못하는 온데 간데 없어지고 양극단 더 썰어갈 것은 불보듯하다. 또 다시 행정통합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될 수 있고, 지난해 뜨거운 화두가 된 행정통합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자는 목소리도 나올 수 있다. 광주와 전남이 천년을 함께해온 사이라는 말만 앞세우지 말고 진정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줄지 바란다.

추석 연휴 시험대 오를 '위드 코로나'

이번주부터 수도권 식당 카페가 정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6명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다. 식당 카페의 영업시간도 밤 10시까지로 연장됐다. 비수도권에선 접종완료자 포함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졌다. 정부가 기존 거리 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4주 연장하면서 이같이 일부 모임을 완화했다. 가장 큰 변화는 추석연휴 기간을 전후해 가족모임을 최대 8명까지 허용했다는 점이다.

비수도권의 3단계 이하 지역은 장소 제한 없이 8인 모임이 가능하다. 인원 규정만 지키면 펜션 등에서 가족모임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명절 때마다 부모, 가족, 친지를 만나지 못했던 것을 고려해 직계 가족 외에 친·인척도 포함해 만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고강도 거리 두기를 유지하면서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적용해 일부 기준

을 완화한 새 방역 지침은 '코로나와의 공존(위드 코로나)'으로 가는 조심스러운 첫걸음이다.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서민 경제난과 의료진 피로도는 이미 한계에 달하고 있다. 이번 방역대책 완화는 민중대명절인 점을 감안해 코로나19에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고 배려하는 차원이지만 방역당국은 모임을 짧게 가질 것을 권고하는 등 조심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갈 길은 멀다. 위드 코로나의 본격 진입은 백신 접종률에 달려 있다. 더욱이 급격한 유행의 증거는 억제했다지만 신규 확진자는 두 달 가까이 네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다. 이 동이 많이질 추석 연휴가 추가 확산의 기점이 될 수도 있다. 1년 8개월여 만에 친·인척을 만나 즐겁고 반가운 명절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 내에서도 방역수칙 준수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에 세 이



김한호
문학박사·문학평론가

코로나가 만연한 여름은 매미소리가 지겨울 만큼 폭음이 극심했다. 지구 온난화로 이상 기온인데다 세계 곳곳에 산불이 발생하여 마치 지구가 불타고 있는 듯하다.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에서는 알프스 산맥의 만년설과 빙하가 지구 기온의 상승으로 녹아내리자 방수포로 덮고 있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할 뿐이다. 이렇게 지구 환경이 갑자기 악화된 것은 최근 수십 년 동안 인간이 저지른 과오 때문에 인간뿐만 아니라 동식물도 살기 어려운 환경으로 변해가고 있다.

더구나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급속도로 녹으면서 남태평양의 섬나라인 몰디브, 투발루가 해수면이 높아져 바다에 잠기

펭귄의 죽음

킨 인간이 쓰다 버린 코로나 마스크가 나왔다.

펭귄은 남극 대륙과 남반구의 적도 부근에서부터 극지방에까지 17종이 살고 있다. 공룡시대가 끝난 6,100만 년 전에 출현한 펭귄은 수명이 20~30년으로 현재 생물 중에서 인간을 포함한 유인원보다 더 오래 사는 동물이다. 펭귄은 조류이지만 날지 못하고 헤엄을 잘 친다. 황제펭귄의 잠수 시간은 최대 30분이며 잠수 깊이는 수심 450m로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먹고 사는데 1년 동안 이동거리가 최대 9,000km나 된다.

펭귄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물이다. 아이들은 사람처럼 두 발로 뒹뒹뒹 걸어가거나 펭귄 애니메이션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쳐다본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펭귄 캐릭터로는 뽀로로와 펑수가 있다. 펑수는 황제펭귄을 닮은 캐릭터이며, 뽀로로는 가슴이 하얗고 파란 털을 가진 쇠푸른펭귄으로 비행기 조종사가 쓰는 헬멧과 비행 슈트를 입고 있다. 하늘을 날고 싶지만 날지 못하는 펭귄의 꿈이 뽀로로로 실현되고 있는 셈이다.

예전에 고아원에서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었다. 아직 학교에 가기 전인 아이들이

펭귄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그들은 부모 형제가 없으니 함께 놀아줄 친구가 펭귄이었다. 불쌍한 아이들을 보면서 그들의 삶이 추운 극지방에 사는 펭귄 같아서 안타까웠다. 하지만 그들은 펭귄처럼 서로 도와가며 모진 추위를 견디듯 처진 사회에서 아무 탈 없이 잘 자라주기를 바랐다. 그런데 펭귄이 사라지면 아이들의 순수한 동심에 상처를 받을까봐 염려스럽다.

남극 대륙에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황제펭귄은 사람을 봐도 피하거나 해치지 않는다. 오히려 사람을 보면 아이들처럼 친근하게 졸졸 따라다닌다. 이렇게 귀여운 펭귄들이 모여 사는 아름다운 남극에 지구 온난화로 해빙이 녹아 황제펭귄이 번식할 서식지를 잃고 폐죽음을 당하여 멸종 위기라는 것은 비참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지구 온난화와 환경 오염으로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어 동식물이 살지 못하는 현실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더 이상 펭귄이 폐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온실가스를 줄이고 공해와 오염을 예방하여 동식물이 멸종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특 지 광 장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부주의로 인한 화재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추석 연휴기간 화재발생 분석(특별경계근무기간 중)을 보면 150건(연평균 30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인명피해 6명(사망 1명, 부상 5명), 재산피해 5억 5,000

추석 명절 고향집에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자

만원이 발생했다.

명절기간 중 생활시설인 주거시설에 대한 화재가 다른 원인에 비해 연평균 6.6건이 발생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소별 화재는 주거시설 33건(22%), 임야 23건(15.3%), 자동차 22건(14.6%) 순이며, 원인별로는 부주의

79건(52.6%), 전기적 35건(23.3%), 원인미상 14건(9.3%) 순으로 음식물 조리 등에 의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장흥소방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온라인 선물하기'를 집중 홍보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다가구·다세

대 주택에서 필수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기를 말하며, 소화기는 층별로 1개 이상,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필요하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만으로도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

이번 추석 명절은 코로나19로 고향집 방문을 자제하는 시점이다.

도민 모두가 고향에 있는 가족과 친지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온라인으로 선물해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자.

/강동원 정남진119안전센터장 소방경

코로나 속 연수 지방의원들 결과로 답해야

기 지 수 집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 기초의원들이 강원도 속초로 대거 외유성 연수를 다녀와 반축을 사고 있다. 광주 광산구의회와 남구의회 소속 의원들은 최근 2박 3일 일정으로 속초의 한 호텔에서 열린 지방의회 의정연수에 참가했다. 참가 인원만도 광산구의원 6명, 남구의원 5명 등 모두 12명에 달했고, 객실 규모에 따라 1인당 65만 원에서 70만원의 경비를 지출했다.

두 의회가 내세운 연수 명목은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조사 등 의정활동 역량 강화다. 하지만 속초에서의 활동 내용은 의정 전문성 강화와 관련이 없다는 게 대체적 시선이다.

연수 시점은 더 큰 문제다. 전국에서 각종 기념행사를 취소하는 등 코로나19 차단에 사활을 걸고 있고, 공무원과 의료진들은 밤낮을 잇는 지 오래다. 코로나 비상사태에 고통 분담은 각층 시민들의 심정이 어떨겠는가.

그동안 지방의회의 연수는 대부분 의무성 관공으로 비쳐지면서 형세 대비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받아왔고, 지역 이미지를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시도 때도 없이 불거지는 의원들의 외유·관공성 연수 기사가 시민들은 분노 단계를 넘어 허탈



임재민
기획탐사부 기자

감까지 가진 지도 오래다.

지방의원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국·내외로 각종 연수를 떠나 공부하고 경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상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폐업하는 위기 속에서도 생존을 위해 인간 힘을 쓰는 상황에서 고집질 일은 분명 아니다. 요즘 같은 언택트 시대라면 방문하고자 하는 시·도의회와 화상회의를 하는 등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었을 것이다.

형세를 써가며 연수에 나서고 있는 지방의원들이 쏟아부은 형세만큼의 경험과 새로운 역을 익혀 시민들과 지자체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답은 의원들 스스로에게 있다. 연수의 효과와 결과를 향상된 역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수많은 시민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선출한 지방의회 의원들을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3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신고 182	▲인광알코올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수도 고장신고 121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전기고장 신고 123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응급의료센터 1339	

1989년 6월 29일 창간		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판)	
회장 朴哲弘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金善男		편집국장 姜賢秀	
대표전화 062) 720-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04, 010-4601-5323			
정 치 부 (062) 720-1060-62	편집 부 (062) 720-1073	기사제보			
경 제 부 (062) 720-1066-67	논 설 실 (062) 720-1006	•TEL (062) 720-1050-53			
사 회 체 육 부 (062) 720-1050-53	전 산 실 (062) 720-1033	•시외팩 010-5601-2219			
사 회 2 부 (062) 720-1043	월 간 국 (062) 720-1007	•FAX (062) 720-1080			
동 부 권 부 (061) 743-4200-01	판 매 국 (062) 720-1004	•E-mail jndn@chol.com			
문 화 부 (062) 720-1071	사 업 국 (062) 720-1011,1099	광고문의			
사 진 부 (062) 720-1040	광 고 국 (062) 720-1016-17	•TEL (062) 720-1016-17			
기 획 탐 사 부 (062) 720-1045-46	관 리 국 (062) 720-1012	•FAX (062) 720-1020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우) 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98 (사동)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